

“경영난 심화” 광주·전남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급증

광주 특례보증 실행 전년대비 5배 ↑
전남 신규 보증 접수 57% 늘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매년 상승
상인들 “내수경기 회복방안 절실”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가 지속되며 내수시장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12·3 계엄사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면서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전례 없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와 금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 상권 전반에 걸쳐 경기 침체 여파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

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 올해 보증 규모를 지난해 1500억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일부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로 소상공인들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특례보증 수혜자가 증가하는 것은 경영난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늘어났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해(1월 24일~2월 19일) 광주시 특례보증 상담은 2366건 접수됐으며, 지난해(2024년 2월 8~19일) 943건과 비교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2월8~19일)을 기준으로 보면 943건에서 올해 1530건으로 62.25% 늘었다.

특례보증 실행건수는 지난해 161건·41억6500만원에서 올해 780건·234억5000만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5배가량 증가

했다. 동일 기간(2월8~19일)을 기준으로 보면 실행건수는 161건에서 601건으로 273.29%, 금액은 41억6500만원에서 178억4300만원으로 328.4% 늘었다.

전남지역도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보증공급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올 1~2월 신규보증 상담·접수·실행 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규보증 상담건수(6407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4332건)과 비교해 2075건 늘었다. 보증접수 건수는 2360건에서 3709건으로, 실행건수는 1590건에서 2196건으로 증가했다. 금액은 보증상담(901억7000만원→1736억1700만원), 보증접수(660억4500만원→1297억3200만원), 보증실행(438억5600만원→767억4800만원)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남신보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전남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보증을 전년대비

1000억원 증액해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남도의 이자지원인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증액한 2000억원을 공급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한 시장 친화적 보증상품 △민생지원 특별보증(1000억원) △지방소멸 대응 특별보증(500억원) △소기업 지원 특별보증(500억원) △신중년 지원 특별보증(100억원) 등 다양한 신상품을 대거 출시했다.

이에 상인들은 신규보증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받기면서도 “내수경기 회복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영희 광주상인연합회 매니저는 “보증 제도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인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반갑고 고마운 제도다. 저금리 대출이라도 받을 수 없었다면 일부 상인들은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면서도 “지원이 확대된 영향도 있겠지만, 특례보증의 상담 및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상인들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실제 많은 상

인들이 ‘안 되더라도 상담이라도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접수하고 있다. 단순히 ‘힘들다’, ‘매출이 떨어졌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 대출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수경기 회복에 있다. 내수경기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기 전에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또한 아직도 특례보증에 대해 잘 모르는 상인들도 많은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82건·646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소상공인들이 매일 일정 금액을 납부해 가입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폐업 등 생계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급된다. **나다운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백 광주점, 봄맞이 ‘먹거리 팝업’ 롯데백화점 광주점 푸드메뉴에서는 다가오는 봄을 맞아 미식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지하1층 이벤트홀에서는 옛날 호떡 맛을 재현한 ‘명품 버블호떡’ 팝업 행사를 27일까지 진행한다. 또 부산의 푸드트럭의 신화 ‘문토스트’의 프리미엄 치즈로 만든 다양한 토스트도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광주 동명동의 디저트 카페로 유명한 ‘휘핑디에그’의 딸기케이크 및 에그타르트와 대만의 명물 대왕카스테라 팝업 등 미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먹거리 팝업을 풍성하게 만나볼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상의, 50면 규모 신설 주차장 완공

회원사방문객 주차 편의성 제고

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회원사를 비롯한 방문객의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진한 신설 주차장 완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상원 회장, 박철홍 수석부회장 등 광주상의 의원들과 시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설된 주차장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0여개의 회관 주변 주택부지의 단계적 매입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지상 주차장에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해 최대 5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신설됐으며, 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제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주차장 신축으로 광주상의의 회원 기업들과의 각종 간담회,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가자격검정·인증, 회의실 이용 등 회관 방문객들 역시 회관 이용 과정에서의 편리성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원 회장은 “이번 주차장 신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기업과 회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요한 투자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회원사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책임 있는 자세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상의는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반기에는 주차장 출입구 환경개선과 조정 정비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기아, 삼성SDI와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
배터리 성능 고도화 추진

현대자동차·기아가 삼성SDI와 협력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출력과 사용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현대차·기아는 의연연구소에서 삼성SDI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위한 (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와 삼성SDI 소형사업부 전략마케팅 팀장 조한제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양사가 각각 보유한 자원과 전문 기술 역량을 한 곳에 모아 로봇 최적화 배터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탑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로봇 산업군에서는 전용 배터리의 부재로 전동 공구나 경량 전기 이동수단(LEV : Light Electric Vehicle) 등에 쓰이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가 복잡하고 비정형적인 로봇의 특성상 배터리 탑재 공간이 제한적인 데다가 규격에 맞춰 작은 셀을 적용하면 출력 용량도 함께 줄어드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배터리 형태를 제한된 공간에 최적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출력과 사용시간을 대폭 늘린 로봇 전용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하



현대자동차·기아가 삼성SDI와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은 신규 개발 배터리의 로봇 적용 평가 및 성능 고도화를 담당한다. 다년간의 로봇 개발 및 운용 경험으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배터리 최대 충·방전 성능, 사용 시간 및 보증 수명 평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SDI는 에너지 밀도 향상을 위해 고용량 소재를 개발하고, 설계 최적화를 통한 배터리 효율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기존 대비 대폭 늘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양 측은 이번 공동 개발이 로봇 전용 배터리 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대차·기아는 삼성SDI와 로봇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선다. 그 첫 걸음으로 3월에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5’의 삼성SDI 전시관에서 현대차·기아의 서비스 로봇 달이(DAL-e)와 모베드(MobED)를 전시할 예정이다. 참관객과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시 로봇을 시연하고, 로봇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선보인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제9기 ‘톡톡 자문단’ 활동 시작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톡톡(Talk-Talk)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9기를 맞이한 ‘톡톡 자문단’은 지난 2017년 1기 활동을 시작으로, 은행의 상품과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고

객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소통 채널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이번 발대식에서는 8명의 새로운 자문단 위원이 선발되어,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정기회의를 통해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고, 광주은행은 고객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향후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와 고객중심 경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자문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목소리가 은행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것이며,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하는 진정성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